

##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강희숙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현대적 의미의 한국어 방언 연구의 출발점을 오구라 신편이(小倉進平) (1913)<sup>1)</sup>에서 찾는다면, 한국어 방언 연구는 어언 100여 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닌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는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배경이 되는 언어 연구 이론 혹은 연구 방법론의 흐름에 따라 방언 연구 성과를 구분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해방 이전 시기,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한국어 방언 연구의 출발을 이른바 역사언어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따른 전통방언학적 연구 시대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해 1950~1960년대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른 구조방언학적 연구, 1970년대 이후에는 변형생성문법 이론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생성방언학적 연구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문제는 방언 연구의 성과를, 일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연구 방

1) 이는 '제주도 방언 1, 2, 3'이라는 논문으로 오구라 신편이는 191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리로 부임하면서 이듬해인 1912년부터 제주도 방언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연구 논문 형식으로 보고하였다(이병근, 2005:43 참조).

법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술하는 방식은 그 시기 구분의 기준이 일반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론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언 연구는 ‘개별 방언의 연구’라는 매우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명옥, 2005:35).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우리의 방언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러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방언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방언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 또는 방언학의 체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방언을 연구하는 학문, 곧 방언학이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닌 학문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최명옥(2005)에서는 방언학의 체계와 함께 각 연구 영역의 개념,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체적인 예와 연구 의의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좀 더 일반화하여 보면 방언학이라는 학문의 체계 혹은 정체성을 밝히려는 연구 성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명옥(2005)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방언학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체계에 비추어 한국어 방언 연구의 현황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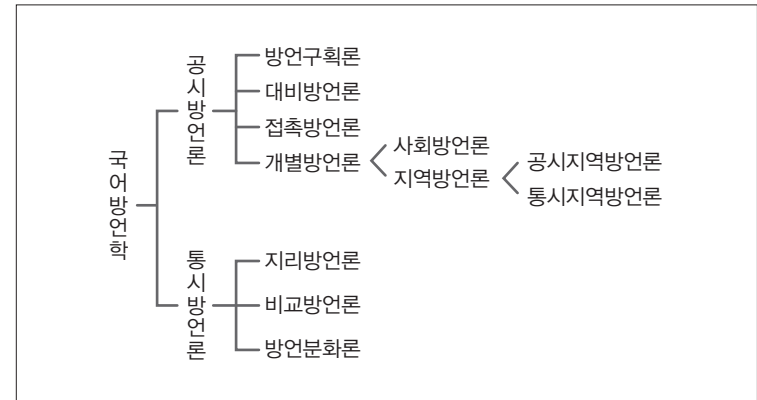
## 2. 방언학의 체계와 연구 영역

1세기가 넘는 한국어 방언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국어 방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방언 연구의 대상 혹은 연구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찾는 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화를

모색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최명옥(2005)이다.

최명옥(2005)은 최명옥(1998), 최명옥(2003) 등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를 이루는 연구 영역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이은 것으로,<sup>2)</sup>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가 모두 7개의 연구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본 데서 비롯된 것이다.

**표 1**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최명옥, 2005:41)



이와 같은 체계에 따르면, 한국어 방언학은 크게 공시방언론과 통시방언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방언론과 통시방언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7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공시방언론: 방언구획론, 대비방언론, 접촉방언론, 개별방언론
- ㄴ. 통시방언론: 지리방언론, 비교방언론, 방언분화론

2) 최명옥(1998)에서는 방언학의 체계를 이루는 연구 영역을 (1) 개별방언연구, (2) 지리방언연구, (3) 비교방언연구, (4) 대조방언연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최명옥(2003)에서는 (1) 지리방언론적 연구, (2) 방언에 대한 구획론, (3) 개별방언론, (4) 대비방언론, (5) 접촉방언론, (6) 사회방언론적 연구 등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방언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연구 영역들의 개념과 목적은 무엇일까? 최명옥(2005:42~67)에서는 [표 1]과 같이 구분한 한국어 방언학의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 영역의 개념을 비롯해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체적인 예와 연구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개별 연구 영역의 개념 및 연구 목적만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표 2 방언학 영역의 개념 및 목적**

영역	개념	연구 목적	
방언 구획론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말을 방언으로 구분하는 방언구획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대상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을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지는 크고 작은 방언으로 구분함.	
대비 방언론	두 방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	언어 체계를 기준으로 두 방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힘.	
접촉 방언론	인접하고 있는 두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나 형성된 접촉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두 방언의 접촉과 간섭에 의해 형성된 제3의 방언인 접촉방언을 대상으로 간섭의 내용을 찾아내고 간섭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힘.	
개별 방언론	지역 방언론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한 언어의 변종에 해당하는 지역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sup>3)</sup>	방언구획론에서 구획된 방언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체계와 통시적인 변화의 내용을 밝힘.
	사회 방언론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된 한 언어의 변종인 사회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개별방언에 존재하는 언어 변이형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인 사회 계층, 연령, 성(남녀), 직업, 교육, 경제 수준, 종교 등과 관련하여 설명함.
지리 방언론	언어 요소나 언어 특성에 대한 변종의 분포를 지리와 관련지은 지리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공간적으로 달리 분포되어 있는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같은 언어 요소나 음운 규칙, 통사 규칙과 같은 언어 특성을 지세(地勢), 교통, 통혼권, 시장권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과 관련시킴으로써 해당 언어 요소나 언어 특성의 분포 과정을 밝힘.	
비교 방언론	둘 이상의 방언체계를 비교하여 그들 방언체계가 분화되기 이전의 조(祖)방언의 체계를 재구하는 것을 뜻하는 비교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언어 체계와 언어 변화의 규칙을 이용하고 언어 내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언어 요소나 언어 특성의 변종이 분화되기 이전의 조어형을 재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祖)방언을 재구함.	
방언 분화론	하나의 언어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진 방언으로 나누는 방언 분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	언어 체계를 중심으로 한 언어나 상위 방언이 하위 방언들로 분화되는 구조를 밝힘.	

최명옥(2005)에서 시도된 이와 같은 방언학 체계의 정립은 ‘개별방언론’은 공식방언론에 속하는 반면 ‘지리방언론’은 통시방언론에 속하는 것이라든지, ‘개별방언론’이 그 대상에 따라 ‘지역방언론’과 ‘사회방언론’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자리매김을 분명히 함으로써 방언학 전체 또는 방언학의 하위 영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할 때 [표 1]의 체계나 [표 2]에서 제시한 방언학 영역의 개념 및 목적은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료 수집이나 방언 연구 방법론 등과 같은 기초적 연구를 방언학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학관사전편집부(小學館辭典編輯部) 편(2002:330~331)에서는 방언학 연구를 크게 기초적 연구, 정태적 연구, 동태적 연구, 종합적 연구의 넷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sup>4)</sup>

(2) ㄱ. 기초적 연구: 자료의 수집

- ㄴ. 정태적 연구: 어휘의 연구, 문법의 연구, 음운의 연구
- ㄷ. 동태적 연구: 비교방언학적 연구, 방언지리학적 연구, 사회방언학적 연구, 대조방언학적 연구
- ㄹ. 종합적 연구: 방언구획론, 방언론

결론적으로 소학관사전편집부 편(2002)에서는 방언학의 연구 영역을 모두 10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명옥(2005)에서는 이 가운데 (2ㄱ)의 ‘기초적 연구’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집’이나 (2ㄹ)의 ‘종합적

3) 연구 분야는 일반언어학에서와 동일하게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으로 구분된다.  
4) 최명옥(2005:37)에서 재인용.

연구'에 해당하는 '방언론'은 방언 연구를 위한 '자료'와 '이론'이지 '연구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방언 연구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어 방언 연구 성과들 가운데는 방언 자료의 수집 방법론에서부터 방언 연구의 의의 또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86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어생활》 통권 5호만 하더라도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모두 여섯 편의 특집 논문이 실려 있다.

- (3) ㄱ. 非專門人의 方言研究(김완진)
- ㄴ. 方言調査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익섭)
- ㄷ. 解放 以後의 方言研究史(이승재)
- ㄹ. 現代國語의 方言圈(전광현)
- ㅁ. 方言의 地理言語學的 研究와 言語地道에 대하여(한영균)
- ㅂ. 《韓國方言辭典》 餘談(최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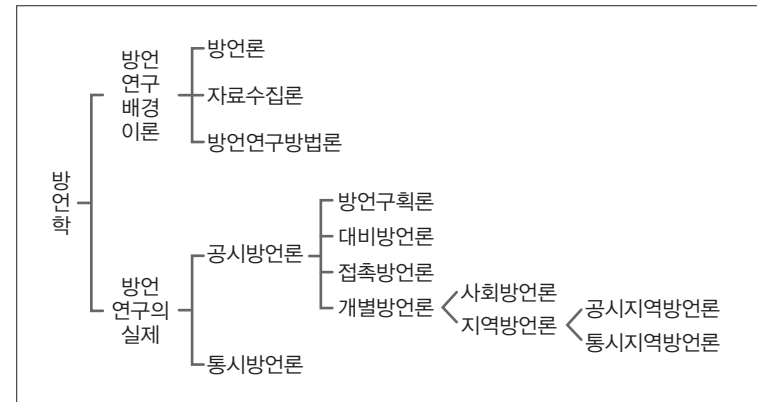
이 가운데 (3ㄹ)의 '現代國語의 方言圈'은 '방언구획론'에 해당하는 것이니만큼 제외하면 모두 다섯 편의 논문이 [표 1]의 체계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뿐 아니라 2007년에 간행된 한국방언학회의 학회지 《방언학》 6에 실려 있는 다음 논문들 또한 자료 조사와 정리, 자료 분석 방법론이나 방언 연구의 의의 등을 논한 기초적 연구 또는 일반적인 방언론에 해당하는 것들이므로 [표 1]은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분류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4) ㄱ. 구술발화 자료와 개별방언론(최명옥)
- ㄴ. 구술발화와 담화분석(이기갑)

- ㄷ. 구술발화의 조사와 정리(박경래)
- ㄹ. 방언 연구의 의의 재론(박창원)

따라서 [표 1]에 제시한 방언학의 체계는 크게 '방언 연구 배경 이론' 및 '방언 연구의 실제'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방언학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방언학의 체계



이러한 체계에 따르면, 방언학은 '방언 연구 배경 이론' 분야와 '방언 연구의 실제' 분야로 나뉜다. '방언 연구 배경 이론'에는 방언의 개념이나 유형, 방언 연구의 의의, 방언학의 역사 등을 다루는 '방언론'과 방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자료 수집 절차나 원리 등을 다루는 '자료수집론', '방언 연구의 실제'와 관련되는 '방언 연구 방법론'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 '방언 연구의 실제' 분야는 최명옥(2005)에서 제시된 방언학의 체계를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표 2]에 제시된 '방언학 영역의 개념 및 목적'은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에 따

라 연구 방법 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표 2]에서는 ‘접촉방언론’이 인접하고 있는 두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나 형성된 접촉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방언 접촉의 과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최명옥(2005:53)에서는 사회방언학을 개별 방언에 존재하는 언어 변이형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곧 사회 계층, 연령, 성, 직업, 교육, 경제 수준, 종교 등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점 역시 사회방언학의 연구 대상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회방언학은 개별 방언의 분화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곧 해당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물론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언어 변이 혹은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국어 방언학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3장의 논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 3.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와 과제

2장에서는 최명옥(2005)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방언학의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어 방언학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방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논의는 당연히 방언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연구 영역별로 그 성과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어 방언학의 연구 성과 전체를 다루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으며, 지면상의 제약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 학위 논문의 성과를 먼저 점검하되,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학술 논문의 성과를 추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원문서비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RISS)’를 바탕으로 할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방언학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은 모두 128편<sup>5)</sup>이었다. 이 논문들을 앞에서 제시한 [표 3]의 방언학의 체계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방언학의 체계에 따른 국내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현황**

구분	논문 수	백분율(%)	
방언구획론	2	1.6	
대비방언론	6	4.7	
접촉방언론	1	0.8	
지리방언론	6	4.7	
비교방언론	0	0.0	
방언분화론	5	3.9	
개별방언론	지역방언론	89	69.5
	사회방언론	19	14.8
	소계	108	84.3
총계	128	100	

이러한 통계 결과는 한국어 방언 연구의 현주소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내용 가운데 가

5)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전자저널 시스템에 업로드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한국어 방언 연구가 거의 대부분 개별 방언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박사 학위 논문 128편 가운데 108편의 논문이 ‘개별방언론’에 관한 것이어서 84.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개별방언론’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그 하나는 ‘지역방언론’의 대부분이 문법의 층위 면에서 볼 때 음운론적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방언론’이 89편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사회방언론’은 19편으로 14.8%의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방언론’에 해당하는 89편의 논문을 문법의 층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음운론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5]의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5** 문법 층위에 따른 지역방언론 연구 현황

층위	논문 수	백분율(%)
음운	62	69.7
어휘	2	2.2
형태	19	21.3
통사	6	6.7
의미	0	0.0
담화	0	0.0
총계	89	100

위의 표를 보면, ‘지역방언론’의 연구 성과 가운데 음운론 층위에서 이루어진 논문은 모두 62편으로 69.7%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표 4]의 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방언학의 성과들은 대부분 개별 방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일정한 지역어를 음운론의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의 경향으로서 그동안 ‘○○ 지역어/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라는 방식의 연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 준다.

문제는 의미나 담화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지역방언론’의 연구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된 국내 권역별 지역어 및 국외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sup>6)</sup> 결과 구축된 지역어 구술 자료를 토대로 한 담화 차원의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기갑(2007:50)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술 발화 자료는 음운, 문법, 어휘 분야의 보조 자료로서뿐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담화 연구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자연스럽게 발화된 언어 자료인 구술 발화는 하나의 주제(discourse topic) 또는 발화의 집합체인 담화의 정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신정보와 구정보를 도입하고 배치하는 우리말의 독특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른 언어에는 없는 한국어만의 독특한 결속 장치를 찾아내어 그 정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또한 구술 발화 자료는 방언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담화 표지의 방언적 분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기갑(2007:64)에서만 하더라도 담화 표지 ‘그저’의 방언별 사용 횟수 및 사용 간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방언권별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인 각 지역어는 한국어의 역사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나 급속히 소멸되고 있어 보존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어를 조사하여 전사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표 6** 방언에 따른 ‘그저’의 사용 횟수 및 시간 간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려말
사용 횟수	포천 (5) 화성 (1)	원주 (11) 양양 (63)	제천 (9) 청원 (7)	대전 (8) 논산 (0)	무주 (6) 남원 (1)	곡성 (3) 진도 (1)	청송 (8) 상주 (3)	창녕 (1) 창원 (0)	한경 (5) 서귀포 (101)	카자흐스탄 알마티 (297)
사용 간격	80	21.8~ 3.8	30	60	68.6	120	43.6	480	48~2.4	0.8

‘개별방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 성과 가운데 ‘사회방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방언론’ 연구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은 우리의 방언 연구가 아직도 일종의 ‘절대성의 원리(the axiom of categoricity)’<sup>7)</sup>에 기대어 개별 방언의 이질성 혹은 가변성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언어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질성이자 가변성이라고 한다면(J. Milroy 1992), 그러한 이질성과 가변성은 당연히 개별 언어의 방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은 우리의 방언 연구가 사회방언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언어 변이(linguistic variation)<sup>8)</sup>와 언어 변화(linguistic change)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방언학에서는 전통적 방언학에서 관찰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언어 변이 현상에 주목하고, 언어 변이가 제멋대로 실현되는 자유 변이가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요인과 체계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어 왔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언어 구조가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언어 변이에 대한 사회방언학의 연구 결과, 언어 변이는 규칙적인 패턴을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 K. Chambers(2009:26) 참조.

8) 사회방언학의 관점에서 언어 변이란 일정한 언어 사회에서나 사회 집단 또는 같은 화자의 말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안적 표현 방식이 공식적으로 둘 이상 공존하여 쓰이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최전승, 2004:647).

따르고 있으며, 화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언어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언어 변이의 요인으로는 지역, 개별 화자의 사회적 신분(사회 계층, 연령, 성별), 담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의 스타일상의 목록, 즉 말투(speech styles),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충성도, 정체성의 정도)를 비롯하여 종족 집단(W. Labov, 1963),<sup>9)</sup> 사회 연결망(L. Milroy, 1980),<sup>10)</sup> 사회적 야망(J. K. Chambers, 2009)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변이 이론에서 다루는 언어 변이의 사회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 (5) 사회 계층, 연령, 성별, 말투,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 주거 지역, 종족 집단, 사회 연결망, 사회적 야망 등.

사회방언학에서 다루는 또 다른 연구 대상으로는 언어 변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진행 중인 언어 변화(language change)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언어 변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이형<sup>11)</sup>의 사회적 분포를 통해 언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조건된 변이 현상은 언어 변화의 원인과 그 사회적 의미 및 언어 변화의 전

9) W. Labov(1963)은 Martha's Vineyard라는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의 작은 섬에서 이루어진 이종모음의 중설화 현상을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서 고려된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직업,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 외에, 영국계, 포르투갈계, 아메리칸 인디언계 등 종족 집단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10)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이라는 개념은 원래 인류학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을 사회언어학에서도 채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은 다양한 교제 습관과 해당 언어공동체의 참여 정도에 따라 상이한 조직망 강도 척도(network strength scale)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에 따라 언어 사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바로 L. Milroy(1980)이다.

11) 변이형(variants)이란 일정한 언어 변이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언어 항목들을 가리킨다.

개 또는 확산의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의 유형 또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방언에서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기술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에게서 어떤 자료를 끌어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의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전통 방언학에서 택하는 방식 그대로 NORMs(Non-mobile Old Rural Males) 요건을 거의 충족하는 한두 사람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우리의 방언들이 겪고 있는 언어 변화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방언 자체의 자율적 언어 변화의 관찰은 사회방언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언어 변이의 관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바,<sup>13)</sup>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드러난 한국어 방언의 분화상은 어떠한가, 또 그와 관련하여 한국어 방언들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는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언어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문법의 전 층위, 즉 음운과 어휘, 형태·통사, 의미, 담화 등의 층위에서 언어 변화가 어느 정도, 또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개별방언론'을 제외한 다른 연구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연구

성과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비교방언론'이나 '접촉방언론'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예 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접촉방언론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언 연구에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표 4]에 따르면 접촉방언론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한 편뿐이다. 이 논문은 위평량(2000)으로,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의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고,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언어적 특질을 공유하는 등어지대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는 전남과 경남의 접경지대에 속한 22개 군(시), 223개 면(읍) 단위를 대상으로 방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9장의 방언 지도를 작성한 후, 각 방언형들의 분포 및 제약을 음운, 문법 형태, 어휘별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전남 구례, 광양, 여수(여천), 순천(승주), 고흥 일부, 경남 하동, 남해, 사천(삼천포) 일부 등 모두 8개의 군(시) 지역이 지리적·역사적,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인하여 양 방언의 특질을 70~90% 정도 공유하고 있는 등어지대에 속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위평량(2000)을 포함한 전통적인 방언지리학에서는 방언 접촉을 두 방언이 지리적으로 연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접촉하는 현상(방언연구회, 2001:133)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방언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이른바 등어선이 많이 통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등어지대(等語地帶) 혹은 전이지대(轉移地帶)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도 그와 같은 전통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 접촉은 등어지대나 전이지대에서뿐 아니라 한 개별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지역 또는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과 매스컴의 발달, 도시화, 교육의 보편화 등 근대화와 함께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12) 물론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은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인 각 지역어는 한국어의 역사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자료이나 급속히 소멸되고 있어 보존이 시급한바, 권역별 지역어를 조사하여 전사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긴 하다(박민규, 2010:5).

1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사회방언학 연구는 W. Labov(1963, 1966)에서부터 비롯된다. Labov(1963)에서는 Martha's Vineyard라는 작은 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중모음의 중설화 현상이 화자의 나이와 직업, 주거지역, 종족 집단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Labov(1966)에서는 뉴욕 시의 영어에서 발견된 모음 뒤의 /r/의 실현이 화자가 속한 사회 계층이나 다양한 말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사회방언학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언어 변이 및 언어 변화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일본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언 접촉의 실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사나다 신지(眞田信治)(2006)에서는 방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sup>14)</sup>

- (6) ㄱ. 당사자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동하지 않는 경우
  - ① 인접 지역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방언 접촉을 경험하는 경우
  - ② 매스미디어나 서적을 통해 표준어와 접촉하는 경우
- ㄴ. 당사자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동하는 경우
  - ① 여행과 같은 일시적인 이동을 통해 방언 접촉을 경험하는 경우
  - ② 이주나 이사 등 장기적인 이동을 통해 방언 접촉을 하는 경우

방언 접촉의 유형을 이와 같이 구분하는 데는 지리적 이동성, 방언 접촉의 직접성, 방언 접촉의 지속성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강희숙(2015:14)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방언 접촉의 유형 및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 방언 접촉의 유형 및 특성(강희숙, 2015:14)

유형	특성	지리적 이동성	방언 접촉의 직접성	방언 접촉의 지속성
A		×	○	○
B		×	×	○/×
C		○	○	×
D		○	○	○

이러한 방언 접촉의 유형 및 특성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한 개별 언어의 변이체로서의 방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언 접촉의 양상은 매우

14) 강석우, 김미정, 이길용(2008:154~155) 참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교통, 통신, 교육 등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특정 방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순수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한성우, 2011:383). 이와 같이 다양한 방언 접촉의 유형과 관련된 방언 연구를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어에서 진행되어 온 다음과 같은 방언 접촉의 연구 주제이다.

**표 8** 일본어 방언 접촉 연구 주제(강석우, 김미정, 이길용 역, 2008:158)

재편성 유형	언어 사상(事象)	연구 사례	
의미 분화	제2방언 습득	도쿄(오사카 출신자)	오카노(荻野, 1995)
		오사카	롱(ロング, 1990) 기시에, 룡(岸江— 롱, 1992)
	변종 변환 <sup>15)</sup> (code-switch)	간사이	사나다(眞田, 2003)
교체	표준어화 I	하치조지마(八丈島)	국립국어연구소(1950)
		후쿠시마 현 시라카와 시	국립국어연구소(1951)
		아마가타 현 쓰루오카 시	국립국어연구소(1953, 1974)
혼효	네오방언	간사이	사나다(眞田, 1987a) 다카키(高木, 2005)
		도쿄	다나카(田中, 1965, 1983)
	코이네 (koiné) <sup>16)</sup>	미나미다이토지마	나카이 외(中井 他, 2004)
		세이신 신도시	아사히(朝日, 2004)
제3형식 도입	표준어화 II	홋카이도 내륙부	오노(小野, 1978, 2001) 국립국어연구소(1965)
유지	이주자의 방언 유지		오카노(岡野, 1984)

일본어에서 이루어져 온 이와 같은 방언 접촉 연구 사례들은 한국어 방언들이 겪고 있는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나는 재편성의 유형이나 언어적

15) 국어학계의 용어로는 '코드 전환' 또는 '코드 바꾸기'로 바꿔 쓸 수 있다.

16) 네오방언(neo-dialect)이란 방언과 표준어의 접촉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체계이며, 코이네(koiné)는 복수의 방언이 접촉하여 새롭게 형성된 해당 집단, 해당 지역 사회의 공통어를 말한다.

사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방언 접촉의 결과로 나타난 재편성의 유형은 ‘의미 분화, 교체, 혼효, 제3형식 도입, 유지’ 등 다섯 가지이며,<sup>17)</sup> 구체적인 언어 사상(事象)은 ‘제2방언 습득’ 및 ‘변종 변환’을 비롯하여 ‘표준어화 I·II, 네오방언, 코이네, 이주자의 방언 유지’ 등 모두 일곱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의미 분화’의 유형 가운데 ‘제2방언 습득’ 양상이나 ‘표준어화 I’, ‘네오방언’ 또는 ‘코이네’에 대해서는 오늘날 진행 중인 방언 접촉 양상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난 ‘제2방언의 습득’은 주로 방언 화자가 혼자서 다른 방언이 쓰이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주지의 방언이 사용되는 장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대구에서 광주로 전학을 간 초등학생이나 광주에서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이 다른 방언을 모방언(mother dialect)으로 하는 화자와의 접촉을 통해 제2방언을 습득하는 예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 가운데 화자의 직접적인 지리적·사회적 이동이나 간접적인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난 제2방언의 습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희숙(2014)에서는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와의 간접적 방언 접촉의 결과 대중들은 자신들이 재미를 느끼는 콘텐츠의 방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모방언 외에 새로운 방언을 제2방언으로 습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방언 화자

17)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강석우, 김미정, 이길용 역, 2008:156~157 참조).

- 의미 분화: A와 B가 의미를 조금 달리하여 두 형식이 모두 사용된다.
- 교체: 지금까지 사용하던 A를 버리고 새로운 형식 B를 채용한다.
- 혼효(混濺): A와 B 두 형식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식이 생겨난다.
- 제3형식 도입: A와 B 이외의 제3형식 C를 채용한다.
- 유지: B라는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A라는 원래 형식을 유지한다.

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는바,<sup>18)</sup> 이와 같은 접촉 유형을 비롯하여 화자의 직접적인 지리적·사회적 이동의 결과 나타난 제2방언의 습득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표준어화 I’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영배(1976), 백경원(1997), 강희숙(2015-), 강윤희(1993), 류성기(2013), 강희숙(2015-)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김영배(1976), 백경원(1997),<sup>19)</sup> 강희숙(2015-)이 지역 방언 화자가 표준어 지역으로 이동한 접촉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강윤희(1993), 류성기(2013), 강희숙(2015-) 등은 화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난 지역 방언의 표준어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인 강희숙(2015-)에서는 지역 방언과 표준어의 접촉 결과 나타난 표준어화 양상을 전남방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휘의 표준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토박이 화자로 광주 지역 소재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135명(남학생 68명, 여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언 어휘의 인지 및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어휘 110개에 대한 인지 정도가 평균 20.6개로 전체 어휘의 18.7%의 낮은

18) 예컨대 조사 대상자들은 TV나 영화, 광고나 대중가요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된 방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결과, 일정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언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가스나, 오빠야, 어~~떨게, 단디해라, 맞나, 살아있네, 후달리다, 치야뿌라 등.
- 아이디아가, 밥 묵자, 살아 있네 등.
- 거시기, 겁나, 근디, 허벌나게, 그랬당께/근당께, 궁께/그랑께, 디진다/디질래, 워매 등.
- 내 말이 그 말이여, 아주 엄병을 해싸네, 엄마 밥이 참말로 맛있네잉, 야, 있나, 요것이 어찌라고 등.

19) 백경원(1997)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 대학생들의 방언 접촉 현상을 계량적 접근법에 의해 기술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보이는 대구방언과 표준어인 중부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함께, 대화의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 등을 고려한 언어 선택, 곧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의 양상 및 대구방언을 모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나타나는 언어 구조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어화’보다는 ‘의미 분화’의 ‘변종 변환’ 차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수준에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언 어휘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준어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준어와의 접촉을 통한 지역 방언의 표준어화가 문법의 전 층위, 곧 억양이나 음운 체계나 과정 등의 음운론적 차원을 비롯하여 어휘와 형태·통사, 의미, 담화 등 문법의 전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표준어화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지닌 한계나 제약은 적지 않다. 따라서 표준어화는 현대국어의 경험한 여러 가지 언어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표준어화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언 접촉의 결과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네오방언’ 또는 ‘코이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강정희(2003)에서는 표준어의 간접 결과 파생된 제주방언의 갈등 현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sup>20)</sup> 이 가운데 일종의 ‘네오방언’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7) ㄱ. 없×수다(=엇수다/어스+우다)
- ㄴ. 있×수다(=이수다/시+우다)
- ㄷ. 먹어×쓰×수다(=먹어수다)
- ㄹ. 가×시×엄수다(=감수다)

위의 예들 가운데 (7ㄱ, ㄴ)은 표준어 어간에 보수적 성격의 제주방언 어미가 융합된 형태이고, (7ㄷ, ㄹ)은 보수적인 제주방언 어간에 표준어의 문

20)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a. 보수형(개신형: 개신형에 의해서 보수형이 밀리고 있거나 밀려 버린 어형  
 b. 보수형=개신형: 개신형과 보수형이 동일 화자 집단이나 개별 화자의 발화에서 수의 변이형으로 존재하는 어형  
 c. 보수형×개신형: 개신형과 보수형이 융합하여 어휘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한 어형

법 요소가 삽입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네오방언’, 곧 ‘신방언’의 존재는 방언과 표준어와의 접촉의 결과로 ‘네오방언’의 출현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네오방언’의 연구는 한국어 방언들이 겪고 있는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방언의 변화에서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비교방언론’이나 ‘접촉방언론’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대비방언론’ 영역과 관련해서도 약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 정인호(2004), 이혁화(2005), 하신영(2010), 이진숙(2013), 김경표(2013), 김동은(2015) 등이 그에 해당하는 데,<sup>21)</sup> 두 방언이 체계 면에서 가지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비방언론’의 결과가 축적될 때에 한국어 방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한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최명옥, 2007:42) 좀 더 다양한 방언권을 대상으로, 음운론의 층위 외에 다른 문법의 층위에서도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언학의 영역 가운데 한국어의 공시대와 통시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언 연구 배경 이론>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의 방언자료집이 개별 방언은 물론 한국어 방언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균질적으로 편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도 따라야 할 듯하다.

한국어 방언자료집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최근의 연구인 정승철

21) 정인호(2004)에서는 평북 용천 지역어와 전남 화순 지역어를, 이혁화(2005)에서는 무주·영동·김천 방언을, 하신영(2010)에서는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를 음운론의 차원에서 대조하였다. 또한 김동은(2015)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를, 이진숙(2013)에서는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를, 김경표(2013)에서는 전남 도서 방언을 음운론적으로 대비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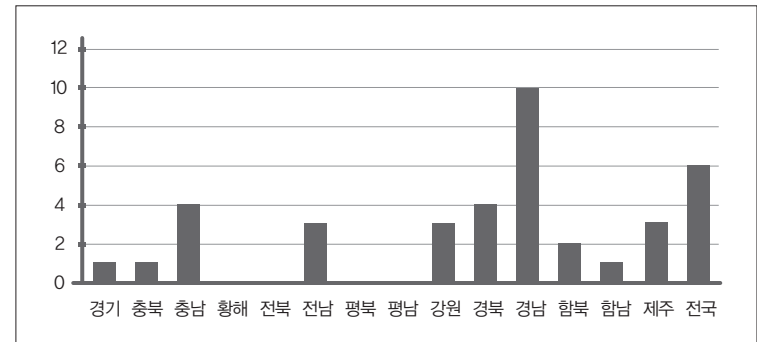
(2014), 소신애(2014), 김봉국(2014)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에서는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를 비롯하여 대방언권 자료집 및 소·핵방언권 자료집의 체제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이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정승철(2014)에서는 방언자료집의 특성 및 의의를 고려한 한국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계층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8) ㄱ. 종이 출판 시기(2000년 이전)

- ① 1960년 이전: 한국어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서의 방언형 수집 정리의 시기
- ② 1960년~1980년대 중반: 개별방언론 및 한국어사 연구 자료로서의 방언형 수집·정리의 시기
- ③ 1980년대 중반~1990년대: 방언 분화론 및 개별방언론의 연구 자료로서의 방언형 수집·정리의 시기

ㄴ. 전자출판의 시기(2000년대 이후): 여러 연구 분야 및 독자층에 대한 고려 아래 다양한 언어재를 담은 방언형 수집·정리의 시기

이에 따르면 한국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는 종이 출판 시기와 전자출판 시기로 이분할 수 있으며, 종이 출판 시기는 출간된 방언자료집의 편찬 목적 및 의의에 따라 1960년대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삼분할 수 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전자출판의 대중화로 이전 시기보다 도서의 출판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지는 한편 개별 방언에 대한 주제적 인식의 출현과 맞물려 한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방언자료집의 출간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자료집의 편찬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다음 [그림]이다.



[그림] 2000년 이후에 나온 방언자료집의 도별 통계(정승철, 2014:29)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개별 방언을 대상으로 한 방언자료집의 출간이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황해도와 전북, 평안도의 경우 방언자료집이 전무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방언자료집의 간행은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 연구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어 방언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한국어 방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명옥(2005)에서 제시된 방언학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체계에 비춘 한국어 방언 연구 현황을 총 128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학의 체계는 최명옥(2005)을 약간 보완하여, 방언학을 <방언 연구 배경 이론>과 <방언 연구의 실제>로 구분하고, <방언 연구 배경 이론>에

‘방언론’, ‘자료수집론’, ‘방언연구방법론’ 등의 영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방언 연구의 실제> 분야는 최명옥(2005)을 그대로 따르되, 개별 연구 영역의 특성에 따라 그 개념이나 연구 목적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박사 학위 논문 128편 가운데 108편의 논문이 ‘개별방언론’에 관한 것으로, 84.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연구 영역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별방언론’의 경우 ‘지역방언론’이 89편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역방언론’의 69.7%가 음운론적 층위에 집중되어 있는 바, 한국어 방언 연구가 담화와 같은 여타의 문법 층위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개별방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 성과 가운데 ‘사회방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방언론’ 연구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언 연구가 아직도 ‘절대성의 원리(the axiom of categoricity)’에 기대어 개별 방언의 이질성 혹은 가변성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방언학적 연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의 방언들이 겪고 있는 방언 자체의 자율적 언어 변화의 관찰은 사회방언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언어 변이의 관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드러난 한국어 방언의 분화상은 어떠하며, 또 그와 관련하여 한국어 방언들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는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방언 접촉은 전통적인 방언학에서 말하는 등어지대나 전이지대에서뿐 아니라 한 개별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지역 또는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러한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제2방언 습득, 표준어화, 네오방언(신방언) 형성 등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방언학의 영역 가운데 한국어의 공시태와 통시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언 연구 배경 이론>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의 방언자료집이 개별 방언은 물론 한국어 방언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방언자료집의 간행은 지역 간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찰과 분석의 대상을 박사 학위 논문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일반 학술 논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약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학술 논문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방언 연구는 방언학의 체계에 비춘 한국어 방언 연구의 빈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석우, 김미정, 이길용 역(2008), 《사회언어학의 전망》, 제이앤씨, 사나다 신지 (眞田信治) 편, 《社會言語學の展望》, くらお出版社, 2006.
- 강영봉(2015), 제주도 방언 어휘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31~76.
- 강윤희(1993),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 현상, 석사 학위 논문(서울대).
- 강윤희(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 연구》 11, 제주학회, 83~146.
- 강정희(2003), 방언 변화와 방언 연구의 방향,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1~15.
- 강현석 외 9인(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 콘텐츠.
- 강희숙(2014), 간접적인 방언 접촉과 제2방언 습득, 《국어문학회 제55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어문학회, 1~15.
- 강희숙(2015<sup>ㄱ</sup>),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dialect shift), 《방언학》 21, 한국방언학회, 93~115.
- 강희숙(2015<sup>ㄴ</sup>), 한국어 방언 접촉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전남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64, 한국문학회언어학회, 9~36.
- 국립국어원 편(2007), 《방언 이야기》, 태학사.
-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 학위 논문(전남대).
- 김규남(1998),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 변이 연구, 박사 학위 논문(전북대).
- 김봉국(2014), 소·핵방언권 자료집의 체제와 성과,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73~104.
- 김영배(1976), 방언 접촉의 한 고찰, 《국어학》 4, 국어학회, 83~91.
- 김옥영(2014),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31~76.
- 김정우(2004), 영화에서 사용된 방언의 효과 연구, 《한국학연구》 2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1~154.
- 류성기(2013), 표준어와 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변화

- 연구, 《방언학》 18, 한국방언학회, 289~324.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사전》, 태학사.
- 박민규(2010), 지역어 조사 보존 사업의 전개 현황,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5~22.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 학위 논문(서울대).
- 백경원(1997), 언어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석사 학위 논문(서울대).
- 소신애(2014), 대방언권 자료집의 체제와 성과,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37~72.
- 위평량(2000),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박사 학위 논문(전남대).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갑(2007), 구술발화와 담화 분석, 《방언학》 6, 한국방언학회, 49~72.
- 이병근(2005), 1910~20년대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방향,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23~61.
- 이상신(2008),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박사 학위 논문(서울대).
- 이정복(2000), 컴퓨터 통신 속의 지역 방언,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역락, 87~118.
- 이진숙(2013),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 학위 논문(전남대).
- 이혁화(2008), 방언 형태론의 연구 대상,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35~56쪽.
- 전병용(2003), 통신언어의 방언 양상에 대한 연구 - 대화방 언어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연구학회, 221~246.
- 전춘명 역(2001), 《독일사회방언학》, 한신대학출판부.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7~35.
- 조태린(2015), 한국어 방언과 방언 연구의 변화에 대한 소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언어학》 23-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77~199.

- 채현식(2008), 방언 형태론의 연구 대상,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7~34.
- 최명옥(1998), 방언, 《새국어생활》 8-3, 국립국어원, 193~202.
- 최명옥(2003), 방언 조사와 연구의 의의, 《새국어생활》 13-4, 국립국어원, 5~21.
- 최명옥(2005), 국어방언학의 체계,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35~72.
- 최명옥(2007), 구술발화 자료와 개별방언언론,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7~48.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한성우(2012),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383~407.
- 藤原與一(1962), 《方言學》, 東京: 三聖堂.
- 小學館辭典編輯部 편(2002), 《お国ことばを知る 方言の地圖帳》, 東京: 小學館.
- Berruto, G.(2005). Dialect/standard convergence, mixing, and the models of language contact: The case of Italy, Auer, P. - F. Hinskens - P. Kerswill (Eds.) *Dialect chan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European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mbers, J. K., Trudgill, P. & Schilling-Estes, N.(2002),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 Chambers, J. K.(2009), *Sociolinguistic Theory*, 2nd edition, Blackwell.
- Cheshire, J.(1982), *Variation in an English Dialect: A Sociolinguistic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ey, R. (Edit.)(2010), *The Handbook of Language Contact*, Wiley-Blackwell.
- Labov, W.(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9.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 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ilroy, J.(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 Milroy, L. & Gordon, M.(2003), *Sociolinguistics*, Blackwell.
- Trudgill, P.(2003), *A Glossary of Sociolinguistics*, Oxford.